



대형마트 3사 신년 프로모션 돌입



이마트 '고래잇 페스타'·롯데마트 '더 핫' 기획전 다채 홈플러스, AI 선별 인기 수·축산 먹거리 최적가 제공

새해를 맞아 대형마트들이 물가 안정과 소비자 혜택을 겨냥한 신년 첫 프로모션에 나섰다. 다양한 품목을 초저가에 선보이는 특색 있는 기획전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이마트는 오는 5일까지 '고래잇(Great) 페스타'를 진행한다. 고래잇 페스타에서는 가격과 품질 모두를 만족한 상품인 고래잇템(고래잇+아이템)을 선보인다.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모은 고래잇템 14종과 카테고리별 2개 이상 구매 시 50%를 할인하는 등 고객이 '응(음)할 때까지' 혜택을 강화했다.

대표 상품은 한우와 국내산 돈육으로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국내산 돈 삼겹살/목심'은 100g당 행사가 1천400원으로 지난해 31주년 행사가 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 수산 대표 품목으로는 '국산 데진문어(100g)'를 행사카드 결제 시 50% 할인해 2천980원에 판매한다.

겨울 제철 과일인 딸기와 '물가안정 사과(4-8입)'도 저렴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

이마트 단독 상품인 '다이슨 V12 Origin Fluffy' 청소기는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3만8천원에 판매한다. 이는 지난 10월 말 출시 이후 최저 가격으로 청소 성능, 먼지통 용량, 무게 등은 동일하지만 구성품을 단순화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이마트 단독 모델이다.

홈플러스는 '2025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오는 8일까지 첫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는 홈플러스가 27년간 쌓아온 유통 및 가격안정 노하우와 구매 빅데이터에 기반한 홈플러스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고객에게 합리적인 장보기 경험을 제공하는 물가안정 캠페인이다.

새해 첫 프로모션에서는 한돈, 한우, 연어 등 인기 수·축산 먹거리 상품을 최적가에 제공하고 딸기 제철을 맞아 딸기 유니버스 등을 진행한다.



모델이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주요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제공)

먼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대상으로 5일까지 '보맥돼 삼겹살/목심(100g)'을 1천300원에 판매하고 '농협안심한우 국거리/불고기(100g)'는 5

0% 할인, '딸기(500g)'는 행사 카드 결제 시 9천900원에 판다. 8일까지 '후라이 노르웨이 생연어 전 품목'은 최대 4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딸기 유니버스에서는 금실 딸기, 킹스베리 딸기, 장희 딸기, 설향 딸기, 비타 베리 딸기 등 전 품목을 행사 카드 결제 시 5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15일까지 시기별 수요가 많은 핵심 상품들을 AI로 선정해 업계 최저

가로 선보이는 AI 가격혁명도 연다. '고산지 바나나(송이)', '풀무원 소가 찌개 두부(300g)', '팽이버섯(4입)' 등 먹거리 위주로 준비했다.

새해를 맞아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한 '더 맛있게, 더 가볍게'도 진행한다. 행사카드 결제 시 '대추방울토마토(900g)', '블루베리(400g)', '계란 15종'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한다.

롯데마트·슈퍼는 2025년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을 오는 8일까지 연다. 올해부터는 매주 꼭 필요한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번주 핫프라이스' 프로모션 할인 품목을 1개에서 3개로 늘렸다.

이번주 행사에서는 '완도 활전복(3마리·냉장·국산)'을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하고 '네가지맛 닭강정(팩)'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더불어 다양한 브랜드의 돈까스 6종을 1+1으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이달의 핫 PB(자사 브랜드)' 등 프로모션을 추가했다. 이달의 핫 PB는 '요리하다'와 '오늘좋은' PB 상품을 한 달간 8개 내외로 선정해 할인가에 제공한다. /정은솔기자

'원가 상승에...' 화장품 새해 가격 줄줄이 인상

미샤·에뛰드 등 로드샵·LG생활건강 등 브랜드

새해를 맞아 화장품 로드샵 브랜드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에이블씨엔씨는 미샤 11개 제품, 어퓨 7개 제품의 가격을 전일부터 최대 2천원 인상했다고 2일 밝혔다.

미샤의 트라플 세도우는 기존 7천원에서 8천원으로 1천원 올랐고, 3천800원이던 실키 래스팅 립렌스도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했다.

어퓨의 경우 미네랄 립앤아이 리무버 250ml 2개 세트 제품의 가격이 1만8천원에서 2만원으로 2천원 올랐다.

미네랄 100 HD 파우더 제품은 7천500원에서 9천원으로 1천500원 인상됐고 1/2 착한 화장술 120매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1천원 올랐다. 아모레퍼시픽 자

회사 에뛰드도 단색 세도우 '룩 앳 마이 아이즈' 가격을 기존 5천500원에서 전 날 6천원으로 500원 인상했다.

잇츠스킨은 공식물 배송비를 기존 2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이날 공지했다.

로드샵 외 화장품 브랜드의 가격도 오른다. LG생활건강의 오화는 전 날 '더퍼스트', '프라임', '미라클 모이스처', 'W익스트림' 등 주요 라인의 제품 가격을 최대 6천원 인상했다. 가격이 6천원 인상되는 제품은 1개로, 오화 더 퍼스트 제네츄어 립스틱·립밤 듀오 홀리데이 에디션이 8만5천원에서 9만1천원이 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4개 제품의 가격을 최대 5천원 올린다. /연합뉴스

오화 프라이머 어드밴서 디에이징 엠플 세럼 50ml이 12만5천원으로 5천원 인상되고 오화 미라클 모이스처 립세린은 3만2천원으로 2천원 오른다. 비온드는 다음 달 1일 13개 제품의 가격을 최대 2천원 올리는 데 이어 오는 5월 1일에는 4개 제품 가격을 최대 1천원 인상한다. 숨은 전 날 '선어웨이', '마이크로A', '타임에너지', '위더풀' 등 주요 라인 제품의 가격을 최대 5천원 올렸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환율 변동 등 수입 원부자재와 인건비, 제조 비용 상승 등 화장품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절체절명의 기로"...유통·식품사 올해 경영 키워드는 '쇄신'

신동빈·정용진·손경식 회장, 고강도 혁신 주문 위기 극복 '혁신·본업 경쟁력·글로벌 확장' 제시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한 국내 유통·식품사들이 올해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혁신과 쇄신'에 방점을 찍었다.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악화한 내수 경기와 원/달러 환율 급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복합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내부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따른 것이다.

유통·식품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2일 내놓은 신년사를 보면 '강도 높은 쇄신'과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가 공통된 위기 돌파의 핵심 키워드로 꼽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불확실성 확대, 내수 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올해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혁신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그룹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화학 부문이 최악의 부진을 겪으면서 그룹 전체의 유통성 위기론이 대두한 점을 예들려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룹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시장 상황이 나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본업 경

쟁력'을 올해 경영 목표로 내걸었다. 정 회장은 특히 신세계의 본업 경쟁력이란 늘 새로움을 갈망하는 '1등 고객'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이러한 1등 고객을 제대로 아는 게 우리의 '본업'이고 1등 고객이 우리를 알아주는 게 바로 경쟁력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전례 없는 위기'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사내 방송을 통해 밝힌 신년사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여덟차례나 언급했다.

그는 "우리 그룹이 올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섰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각 사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기 해법으로는 글로벌 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p>· 상무지국 453-2554</p> <p>· 광천지국 374-2120</p> <p>· 진월지국 676-2726</p> <p>· 봉선지국 673-6836</p> <p>· 백운지국 673-0123</p> <p>· 두암지국 266-1920</p> <p>· 농성지국 362-4102</p>	<p>· 유동지국 222-8171</p> <p>· 운암지국 529-3548</p> <p>· 용봉지국 261-1503</p> <p>· 신가지국 954-1420</p> <p>· 양산지국 574-3745</p> <p>· 하남지국 951-9954</p> <p>· 운남지국 952-1687</p>	<p>· 오치지국 261-9461</p> <p>· 문흥지국 261-9462</p> <p>· 일곡지국 573-3200</p> <p>· 첨단지국 971-7374</p> <p>· 치명지국 371-9584</p> <p>· 수원지국 955-0451</p> <p>· 광산지국 944-0993</p>
---	--	--	--

<p>지방 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